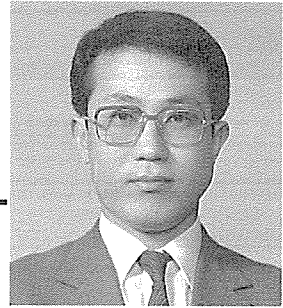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지원



서 성 진 (원촌중학교 주임교사)

교실과 실험실에서 학생들 떠드는 소리와 먼지 속에 묻혀 「과학」이라는 괴물을 요리하여 학생들에게 맛보게 하려는 과학교사는 때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가야할 방향을 잃어 당황하곤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행동과 질문, 엉뚱한 길로의 발전(?) 등으로 해서 지도교사는 본시의 목표마저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늘 수업(실험)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복도에서 교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함께 그 부족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막연하게 불평을 해보곤 한다.

실험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실험기자재이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조잡한 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실험기자재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작년에 과학실험기자재 수리소가 문을 열어 이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상에서 제작하여 실제로 공급한다면 바람직하리라 본다. 더 나아가서 같은 종류의 기구라 하더라도 재질과 규격을 학교(교사)의 요구에 따라 생산, 납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같은 실험도 교사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지도방법에 따라 실험기구도 다소의 변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3년은 교육부가 제정한 「과학교육의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지만 역시 대전 세계박람회와 가을에 있었던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가 그 핵심이었다고 본다. 특히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과학행사로 자리매겨진 것으로 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현장의 과학교육을 발전적으로 집대성하였다고 본다. 학교에서 의미있게 탐구되었던 과학활동이 발표, 경연 및 공연의 무대를 통하여 전달되었고, 그동안 경시되었던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새롭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출연자 또는 관람자로서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의 학생과 과학교육 관계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가 전한 메시지는 학교 현장에 참신한 충격과 새로운 장을 펼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교육부와 대회의 주관자들은 더욱 발전된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단순하게 우수자를 포상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평가하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연구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학교육담당 행정가들에게 바라는 바 크다. 교육의 성과는 현장교사들의 열의에 의해 그 허와 실이 좌우됨을 인정하면서, 이미 시대는 정보화·국제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구시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의 과학교육을 현장교사의 열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초현대적 시설과 이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가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과학교육 담당 행정가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7